

# 김종직 <탁라가>의 번역 양상 고찰

윤치부\*

## <목 차>

1. 머리말
2. <탁라가> 번역의 사적 개관
3. <탁라가> 번역의 실상
4. 맺음말

## 1. 머리말

1465년(세조 11) 2월 28일 35세의 영남병마평사 김종직은 지금의 충청남도 천원군 직산면 지역에 있었던 성환역에서 제주에서 악물을 진공 하러 온 김극수를 만나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묻고 칠언절구인 <탁라가> 14수를 짓게 된다. 이 <탁라가>는 『점필재집』<sup>1)</sup>은 물론 『속동문선』<sup>2)</sup> 같은 당대와 후대의 여러 문헌에 수록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된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백과사전인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의 ‘가(歌)’항에서도 모두 23편의 우리나라 시가를 소개하면서 김종직의 1,200여 수 한시로서는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sup>3)</sup> 아울러 청음

\* 제주대학교

- 1)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12, 민족문화추진회, 1996, 208~209면.
- 2) 경원문화사, 『韓國漢詩文選集』 5, 경원문화사, 1992, 193~194면.

김상헌 등에 의해 <보탁라가>처럼<sup>4)</sup> 차운한 한시들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제주의 풍토와 물산을 소개하는 원조적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점점 강화시켰다.

이러한 <탁라가>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김종직의 문학세계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그의 수많은 한시들을 탐구하면서 그 가운데 <탁라가>를 일부분으로 다루는 양상이 그것이다. 이는 <탁라가>가 의미 있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동도악부>·<금성곡>·<문경팔영>·<십절가> 등과 같이 기속시적인 작품의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관점이다.<sup>5)</sup>

이와 같이 <탁라가> 연구를 촉진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보다도 수록 문헌의 영인과 번역 작업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영인 작업으로서는 『이조명현집』·『한국문집총간』·『점필재선생전서』 등이 계속적으로 간행되면서<sup>6)</sup>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큰 어려움 없이 김종직이 남긴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번역 작업은 바로 이러한 영인 작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점필재집』의 번역은<sup>7)</sup> 김종직 전반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 3) 權文海, 남명학연구소 경상한문학회 역주, <佔畢齋作千羅歌, 畧記風土物産>, 『大東韻府群玉』 卷之六, 소명출판, 2003, 502면.
- 4) 金尙憲, 金禧東 譯, 『南槎錄』 二十九日 癸亥條, 永嘉文化社., 1992, 125~128면.
- 5) 朴善楨, 『佔畢齋 金宗直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86, 187~191면. ; 鄭景柱,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石堂論叢』 16, 東亞大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0, 137~140면. ; 金成奎,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Ⅱ : <탁라가>·<금성곡>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1,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2, 102~106면. ; 이연순,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83~85면. ; 李源杰,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漢文學報』 5, 우리한문학회, 2001, 55~85면. ; 李源杰,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退溪學』 14, 安東大 退溪學研究所, 2004, 29~65면.
- 6)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李朝名賢集』 2, 成均館大 出版部, 1986, 1~1107면. ; 民族文化推進會 編, 앞의 책, 1~541면. ; 啓明漢文學研究會, 『佔畢齋先生全書』(全七冊), 學民文化社, 1996, 1~3242면.
- 7) 김종직, 임정기 역, 『국역 점필재집』 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96, 1~385

<탁라가>가 갖고 있는 작품적 특징에 대해 주목하게 하였다. 이처럼 『점필재집』의 번역은 <탁라가>가 수록된 또 다른 문헌인 『속동문선』, 『해동잡록』, 『탐라지』, 『남사록』, 『남사일록』, 『남환박물』 등의 번역과<sup>8)</sup> 맞물리면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들 번역은 결국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를 가져왔으니 흔히 말하는 오역, 개역, 표절의 의미들이 <탁라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등을 중심으로 <탁라가>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탁라가> 번역의 사적 개관

지금까지 <탁라가>가 수록된 문헌과 논문 속에서 번역된 것을 개관해 보려고 한다. 먼저 문헌으로는 『점필재집』, 『속동문선』, 『해동잡록』, 『탐라지』, 『남사록』, 『남사일록』, 『남환박물』, 『심재집』, 『탐라시선』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박선정·김성규·이원걸·정용석·정경주·이연순 등이 있는데, 이들을 저서와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순으로 살펴본다.

### 2.1. 『국역 대동야승』 V

면.

- 8) 申用漑 外, 양주동 외 공역, 『국역동문선』 10, 서울판사, 1968, 1~913면. ; 민족문화추진회, 권덕주 역, 『국역대동야승』 V, 민족문화추진회, 1971, 1~817면. ; 제주도교육위원회, 김행옥 외 역,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1, 1~462면. ; 李元鎭, 金相助 譯,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1~308면. ;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470면. ; 淡水契, 吳文福 外 譯,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1~915면. ; 李源祚, 高尙憲 外 譯,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1~317면. ; 金尙憲, 金禧東 譯, 앞의 책, 1~318면. ;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1~525면. ; 李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1~506면. ;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1~356면.

1971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이 책은 권덕주가 번역하였다. 여기에 번역된 책은 권별의 『해동잡록』인데, 국역 대본은 조선고서간행회본이다.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직역만으로 원 뜻을 전달할 수 없거나 문장의 맛을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의역을 하였다. 『해동잡록』2 ‘김종직’ 항에는 김종직을 소개하면서 <탁라가> 제6수와 제8수를 소개하였다. 번역문은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여 수록하였고, 이 책의 뒤쪽에는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탁라가> 번역문은 191쪽에 수록되었다.

## 2.2. 태호의 『탐라지』

1976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간행된 『耽羅文獻集』에 수록된 다섯 번째 책이 태호의 『탐라지』이다. 태호는 1651년(효종 2)부터 1653년(효종 4)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원진의 호이다. 이 책은 박용후와 김계호의 감고를 거쳐 김행옥이 번역하였는데 『제주도』에 연재하였던 것을 재차 재검토하여 수록하였다. 원문은 강두환과 김영돈의 소장본을 대조하여 수록하였으나 오자와 탈자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번역문은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여 수록하고 각 면의 번역문 하단에는 일곱 줄에서 열두 줄 정도의 활자화한 한자 원문을 띄어쓰기하여 수록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그러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풀이하는 별도의 각주 처리는 없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296쪽부터 298쪽에 걸쳐 수록되었다.

## 2.3. 청음의 『남사록』

태호의 『탐라지』와 마찬가지로 1976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간행된 『耽羅文獻集』에 수록된 세 번째 책이 청음의 『남사록』이다. 청음 김상헌은 1601년(선조 34) 8월 1일 吉雲節의 제주 반란 음모사건의 무위를 위하여 어사로 파견되어 다음해 2월 15일 복명하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제주를 왕래하는 도중의 견문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남사록』을 지었다. 이

책은 박용후가 번역하였다. <탁라가> 번역문은 이 책의 104쪽부터 106쪽까지 수록되었다.

#### 2.4. 李元鎮 『耽羅志』

1991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9)로 간행된 李元鎮 『耽羅志』는 김상조가 번역하였다. 이 책은 고도서본 『탐라지』를 저본으로 하였는데, 책의 뒷부분에 고도서본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별도의 활자화한 한문 원문 수록 없이 번역문은 인명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한해서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한자어에 대한 별도의 각주 처리는 없다. <탁라가> 번역문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수록되었다.

#### 2.5. 『南槎錄』

1992년 영가문화사에서 간행된 이 책은 김희동이 번역하였다. 이 책은 청음유집본 『남사록』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세로쓰기를 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점필재 탁라가’ 다음에 [ ] 속에 필요한 한자를 외현하였고, 본문의 경우 각 면의 상단에 시의 한문 원문을 세로로 활자화하고, 그 하단에 역시 세로로 한글 번역문을 적었는데, ‘鄕亭·藥材·海中人’ 등 필요한 한자를 외현하였다. 각 흡수면 끝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풀이하였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129쪽부터 133쪽까지 수록되었다.

#### 2.6. 『국역 점필재집』 I

이 책의 국역대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본 『점필재집』이다. 이 국역대본은 1649년(인조 27)에 중단된 기축본으로 추측되는데, 1996년 임정기가 4책으로 나누어 완역하였다. 원문을 영인 첨부하고, 오자는 원문 상단에 표기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번역문 다음에 이어서 ( ) 속에 한문 원문을 추기하였으며, 본문의

경우 번역문 우측에 한문 원문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주석은 간단한 경우 ( )나 [ ] 에 간주하고, 긴 경우 각주하였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국역 점필재집』 I 권의 『점필재집 시집』 제1권의 9쪽부터 11쪽에 걸쳐 수록되었다.

## 2.7. 『국역 동문선』 10

이 책의 국역대본은 동문선 정속편 합본의 필서체자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이우성 선생의 가장본인 경희출판사 영인본(1966)과 7책본인 조선고서간행회본으로 하고 있다. 1996년 초판된 이 책은 양주동과 김달진이 나누어 번역하였는데 <탁라가>가 수록된 『속동문선』 제9권은 김달진이 번역하였다. 역시 원문을 영인 첨부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그 밑에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이어서 번역문을 부제로 달았다. 본문의 경우 한문 원문 없이 번역문만을 수록하였는데, 필요한 경우 ( ) 속에 한자를 병기하고, 두 곳에 각주를 달았다. 그러나 ‘해월(海月)·호산(嶽山)·거구(巨口)·문린(文麟)·수우(水虞) 처럼 정확한 어휘의 뜻을 요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번역문에 나타냄으로써 문맥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674쪽부터 676쪽까지 수록되었다.

## 2.8. 『南槎日錄』

2001년 제주문화원에서 간행된 이 책은 김익수가 번역하였다. 이 책은 이증의 후손인 상지영서대학의 이병헌 교수의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책의 뒤쪽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탁라가(毛羅歌)’라는 제목 오른쪽 밑에 ‘점필재(佔畢齋)’라는 작자를 밝혔고, 본문의 경우 한 면을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그 오른쪽에 활자화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한글 번역문의 경우 필요한 경우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하단에 각주 처리하였다. 번역문은 213쪽부터 216쪽까지 수록되었다.

## 2.9. 『역주 탐라지』

2002년 김찬흡·고창석·김혜우·김상옥·조성윤·강창룡·오창명·오수정 등이 집체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책의 뒤쪽에는 국립중앙도서관본 『탐라지』 원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김종직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 제주목의 제영편은 김찬흡이 번역하였으나 한시 대부분은 오문복이 역주를 맡고 있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주요 한자어를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여 수록하였고, 본문의 경우 각 면의 왼쪽에 한자 원문을 활자화하여 밝히고 바로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는 2단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목에서와는 달리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다. 각 면의 하단에는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205쪽에서부터 209쪽에 걸쳐 수록되었는데, 제1수는 누락되었다.

## 2.10. 『濟州島實記』

2003년 제주시우당도서관에서 간행한 이 책은 오문복이 번역하였다. 이 책에는 <탁라가> 14수 중 제3수만을 번역 소개하고 있는데, 활자화한 한문 원문은 2단으로 먼저 수록하고 그 밑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제목은 <탁라가>라 하였고, 제목 밑에는 ‘점필재 김종직’을 작자로 밝히고 있다. 번역문의 경우 별도로 ( ) 속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각주 처리는 없다. 번역문은 167쪽에 수록되었다.

## 2.11. 『譯註 增補耽羅誌』

2005년 제주문화원에서 간행된 이 책은 김순이·김일우·홍순만·김익수·홍기표·박찬식·고응삼·김찬흡·오문복 등이 집체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한시 부분은 오문복이 번역하였다. 제목의 경우 ‘탁라가’ 한 단어만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본문의 경우 각 면의 왼쪽에 활자화된 한문 원문과 그 오른쪽에 번역문을 수록하였는데,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

다. 필요한 경우 각 면의 하단에 각주를 달았다. 『역주 탐라지』와 같이 오문복이 번역하였으나 번역문이 약간 차이가 난다. <탁라가> 번역문은 536쪽부터 539쪽까지 수록되었다.

## 2.12. 『耽羅詩選』

2006년 이화문화출판사에서 간행한 이 책은 제주에 벼슬살이 왔거나 유람으로 거쳐 간 이들의 시와 제주인이나 제주에 와있는 사람에게 보낸 시를 모아 오문복이 번역한 책이다. 이 가운데 김종직의 <탁라가>는 ‘장편시’편에 두 번째로 수록되었다. 이 <탁라가>는 김석익의 『心齋集』과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수록된 <탁라가>를 대조하면서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耽羅歌’라는 제목 하단에 ‘金宗直’이라는 작자를 밝히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본문의 경우 각 면의 상단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적고 그 하단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 한자어의 경우 한자어의 ( ) 속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으나 각 면 하단에는 ‘글자풀이’와 ‘참고’를 두어 주석을 달았다. 번역문은 395쪽부터 408쪽까지 수록되었다.

## 2.13. 『탐라지초본』(상)

2007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간행된 이 책은 김찬흡·오문복·김혜우·김상옥·강창룡·오창명·오수정 등이 집체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원래 『탐라지초본』은 ‘춘·하·추·동’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나 이 책에는 그 중 ‘춘·하’ 2권만을 번역하였다. 이 책의 시 부분은 오문복이 번역하였는데, 번역문은 『역주 탐라지』와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 이본상 글자의 변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 책의 뒤쪽에는 『탐라지초본』의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211쪽부터 213쪽에 걸쳐 수록되었다.

## 2.14. 『南槎錄 譯註』(上)



2008년 제주문화원에서 간행된 이 책은 홍기표가 번역하였다. 이 책은 청음유집본을 저본으로 삼고 규장각본을 대교하면서 역주하였다. 책의 뒤쪽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이나 본문의 경우 모두 ( ) 속에 한자어를 병기한 번역문을 수록하고 그 다음에 한문 원문을 활자화하여 수록하였다. 각 면의 하단에는 필요한 경우 상세한 주해를 달고 있다. <탁라가>의 번역문은 200쪽부터 207쪽까지 수록되었다.

### 2.15. 『남환박물』

2009년 도서출판 푸른역사에서 간행된 이 책은 이상규와 오창명이 함께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남환박물』은 두 종류의 필사본 이본이 있는데, 맨 뒤쪽에 <탁라가> 등을 포함한 <황복원대가>의 원문이 수록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종류이다. 이 책에서는 『점필재집』의 <탁라가>를 원문으로 복원시켜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제목의 경우 ‘점필재 김종직의 <탁라가> 14절’이라고 한 다음 그 하단에 『점필재집』의 제목과 제5수까지의 원문을 영인하였고, 본문의 경우 한 면을 2단으로 나누어 왼쪽에 ( ) 속에 한자 병기 없이 한글 번역문을 그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필요한 한자어에 대해 후주를 달았다. 번역문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수록하였다.

### 2.16. 「佔畢齋 金宗直 研究」

박선정은 1986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佔畢齋 金宗直 研究」에서 작품세계를 논하면서 <탁라가>를 연구대상 가운데 하나의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자주의식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탁라가>를 소개하면서 14수 중 6수<sup>9)</sup>를 언급하였다. 예림서원본 『점필재집』을 저본으로 하여 각수마다

9) 제5, 6, 7, 8, 9, 10수.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오른쪽에 한자를 외현시킨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각주를 달기도 하였다. 번역문은 187쪽부터 191쪽까지 수록되었다. 3년 후 이 논문은 이우출판사에서 『佔畢齋 金宗直 文學研究』로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 번역문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수록되었다.

### 2.17. 「金宗直의 漢詩研究」

정용석은 1986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宗直의 漢詩研究」에서 자주의식의 시세계를 논하면서 풍물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탁라가> 14수 가운데 4수<sup>10)</sup>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규장각본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본 『점필재집』을 저본으로 하였다. 번역문은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단지 ‘元에서’ 한 곳에서만 한자를 외현시켰다. 각 수마다 한문 원문의 끝에는 각주를 달아 몇 번째 한시인지를 밝히고 있다. 번역문은 75쪽부터 77쪽까지 수록되었다. 이는 2001년 그의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金宗直의 漢詩研究」 71쪽부터 73쪽에 재수록되었는데, 번역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 한자의 외현도 사라졌다.

### 2.18.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정경주는 1990년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石堂論叢』 제16집에 발표한 논문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에서 지방의 세시풍속이나 민간신앙을 관심 있게 묘사하거나 각처의 독특한 인문지리적 환경이나 토속적 물산을 읊은 시를 기속시라고 하면서 <탁라가>를 언급하였다. <탁라가> 14수 가운데 2수<sup>11)</sup>를 다루고 있는데, 번역문은 한 면을 2단 형식으로 하여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원문을 수록하고 그 오른쪽에 ‘北人’처럼 한자를 외현시킨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

10) 제5, 6, 7, 8수.

11) 제3, 10수.

역문은 128쪽부터 139쪽에 수록되었다.

### 2.19.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II) : <千羅歌>·<錦城曲>을 중심으로」

김성규는 1992년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간행된 『漢城語文學』 제11집에 발표한 논문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II) : <千羅歌>·<錦城曲>을 중심으로」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게 <타라가>를 다루고 있다. 14수 가운데 10수<sup>12)</sup>를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번역문은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오른쪽에 한자를 외현시킨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102쪽부터 105쪽까지 수록되었다.

### 2.20.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연구」

이연순은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연구」에서 악부시의 작품세계를 논하면서 新制樂府의 기타 지방 소재의 작품으로 <타라가>를 언급하고 있다. <타라가> 14수 가운데 3수<sup>13)</sup>를 다루고 있는데, 번역문은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그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을 수록하는 형식이다. 한글 번역문에는 ( ) 속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한자를 외현시키지 않았다. 번역문은 83쪽부터 84쪽까지 수록되었다.

### 2.21.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이원걸은 2001년 『漢文學報』 제5집에 발표한 논문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에서 토산과 풍물을 언급하면서 <타라

12) 제2, 3, 5, 6, 7, 8, 9, 10, 12, 13수.

13) 제1, 2, 6수.

가> 14 중 3수<sup>14)</sup>, 토속 신앙을 다루면서 2수<sup>15)</sup>, 민간 유풍과 세시 풍속을 논하면서 1수<sup>16)</sup> 등 총 6수를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예림서원본 『점필재집』을 저본으로 하여 각수마다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번역문과 그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번역문은 66쪽부터 77쪽까지 수록되었다. 이는 2004년 간행된 이원걸의 저서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의 91쪽부터 109쪽까지 재수록되었는데, 상단에 번역문을 수록하고 그 하단에 2단 형식의 활자화된 한문원문을 수록하였다.

## 2.22.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이원걸은 2004년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의 『退溪學』 제14집에 발표한 논문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에서 <탁라가>에 나타난 제주의 특산과 풍습을 다루고 있다. <탁라가> 14수 전체를 차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림서원본 『점필재집』을 저본으로 하여 각수마다 한 면에 2단 형식으로 왼쪽에 번역문과 그 오른쪽에 활자화한 한문 원문을 수록하였다. 32쪽부터 41쪽까지 수록되었다. 이 논문은 2004년 간행된 이원걸의 저서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의 228쪽부터 238쪽까지 재수록되었는데, 상단에 번역문을 수록하고 그 하단에 2단 형식의 활자화된 한문원문을 수록하였다.

## 3. <탁라가> 번역의 실상

한문 원전에 수록된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번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문 원전을 번역하는 일은 예나

14) 제6, 7, 8수.

15) 제3, 10수.

16) 제2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학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원전에 따른 이본상의 글자의 변이 내지는 착종을 간과하거나 시어의 올바른 뜻을 찾아내는 번역의 기본을 무시한 무리한 의역 등은 작품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틀리게 읽는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3.1. 틀린 한자와 오독의 사례

오독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문과 다른 글자로 읽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본에 따른 글자의 변이를 간과한 데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 둘은 혼합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탁라가> 제1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郵亭相揖若相親 包重般般藥物珍. 衣袖帶腥言語澁, 看君真是海中人.

제1수에서 이본에 따라 글자의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2구의 ‘包重’이다. 이본에 따라 ‘包重’ 또는 ‘包裏’로 쓰였는데, 전자는 『점필재집』·『속동문선』·『남사록』·『남사일록』 등에서 쓰였고, 후자는 『탐라지초본』·『탐라지』(동경대학본)·『증보탐라지』·『심재집』 등에서 쓰였다.

이에 대해 오문복이 번역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상)에서도 앞과 똑 같이 읽고 있다. 마땅히 『탐라지초본』을 번역하였으므로 ‘包裏’로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필재집』의 표기인 ‘包重’으로 오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는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번역한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에서도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김행옥이 번역한 태호의 『탐라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郵亭相揖若相親 包裏般般藥物珍. 衣袖帶腥言語澁, 看君真是海中人.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제2구의 ‘包裹’로 읽은 부분이다. 이원진의 『탐라지』이면 ‘包重’이 맞는 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包裹’도 아닌 ‘包裹’로 오독하고 있다.

다음은 <탐라가> 제7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車螯海月與蚶山, 巨口文鱗又幾般. 日暮腥烟霧鄉井, 水虞千舶泛鮮還.

이에 대해 김익수가 번역한 『南槎日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車螯蛤月與蚶山 巨口文鱗又幾般 日暮腥烟霧鄉井 水虞千舶泛鮮還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구의 ‘車螯’와 ‘海月’ 두 곳이다. 전자의 경우 ‘점필재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서는 ‘車螯’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원조의 『탐라지』, 동경대학본 『탐라지』,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이종의 『남사일록』, 김석익의 『심재집』 등의 이본에는 ‘車螯’로 잘못 쓰이고 있다. 왜냐하면 문맥상 ‘대합조개’로서의 표기는 ‘車螯’가 아니라 ‘車螯’가 바른 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맥상 ‘살조개’의 뜻인 ‘海月’도 ‘蛤月’과 ‘蠣蛤’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海月’이 맞는 표기이다. ‘海月’이 『점필재집』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蛤月’은 규장각본 『남사일록』과 이종의 『남사일록』에만 쓰이고 있으며, ‘蠣蛤’은 청음유집본 『남사일록』에만 사용된 표기이다.

이에 대해 박용후가 번역한 청음의 『남사일록』, 김희동이 번역한 『南槎日錄』, 홍기표가 번역한 『南槎日錄 譯註』(上) 등에서는 청음유집본에 따라 모두 ‘蠣蛤’으로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백합(白蛤)’, ‘명합’, ‘미상’으로 해석하여 결국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번역문에서 각기 ‘대합(大蛤)과 백합(白蛤)과 굴이 산 갈아’와 ‘조개도 여러 가지 굴도 또한 많은데’와 ‘차오(蚶山)와 명합(蠣蛤)과 호산(蚶山)과’와 같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애매한 번역을 하고 있다. 특히 박용후의 경우는 제1구만을 ‘車螯蠣蛤月與蚶山’ 7언이 아닌 8언으로 읽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의 이본에 왜 ‘海月’로 되어있

는지를 깊이 있게 숙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탁라가> 제10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庭除草際遇錢籠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吳公在竹筒

제10수에서 이본에 따라 글자의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제4구의 ‘還怨’이다. 이본에 따라 ‘還怨’ 또는 ‘還慚’으로 표기되었는데, ‘還怨’은 『점필재집』·『탐라지』·『남사록』·『남사일록』·『심재집』 등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하였는데 반해 ‘還慚’은 단지 『속동문선』에서만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정경주는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庭除草際遇錢籠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蜈蚣在竹筒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오독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제4구에서이다. 정경주가 이 논문에서 저본으로 하고 있는 이본은 『점필재집』 권1이라고 출전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4구의 ‘還慚’은 ‘還怨’으로 읽어야 하고, ‘蜈蚣’은 ‘吳公’으로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還怨’이 아니라 『속동문선』 표기인 ‘還慚’으로 잘못 읽고 있고, 어느 이본에도 없는 ‘蜈蚣’으로 오독하고 있다. ‘吳公’이나 ‘蜈蚣’의 경우는 둘 다 ‘지네’의 뜻이므로 번역문에 차이가 없겠으나 원문을 충실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이처럼 ‘吳公’을 잘못 읽는 경우는 김달진의 번역한 『국역 동문선』 10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이 제4구를 “도리어 지네 [蜈蚣]가 대통에 있을까 두려워한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蜈蚣’은 ‘지네’와 ‘메뚜기’의 뜻으로 ‘吳公’과는 다른 뜻이다. ‘還怨’과 ‘還慚’의 경우도 ‘원망한다’가 아니라 ‘두려워한다’로 읽게 됨으로써 결국 ‘도리어 두려워하네’로 오역하였다.

그러나 하면 홍기표는 『南槎錄 譯註』(上)에서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庭除草際遇錢籠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哭 還恐蜈蚣在竹筒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구의 ‘相哭’이다. ‘相哭’은 『남사록』에만 사용한 표기이며,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相笑’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도 ‘서로 운다’는 ‘相哭’보다는 ‘서로 비웃는다’는 ‘相笑’가 더 어울린다.

### 3.2. 잘못된 번역 사례

잘못된 번역의 사례로는 오역, 얼버무리기, 빼끼기, 개역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제주의 삼성신화를 노래한 <탁라가> 제2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當初鼎立是神人，伉儷來從日出濱。百世婚姻只三姓，遺風見說似朱陳。

이에 대해 임정기는 『국역 점필재집』 I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당초의 세 사람은 바로 신인이었는데/서로 짝지어 해뜨는 동쪽에 와서 살았네/백세토록 세 성씨만 서로 혼인을 한다 하니/듣건대 그 유품이 주진촌과 비슷하구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구인데, 벽랑국의 세 공주가 제주에 와서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 신인과 결혼해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즉 ‘해 뜨는 동쪽에서 와서 살았네’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 뜨는 동쪽에 와서 살았네’로 오역하였다.

다음은 <탁라가>에서 제주의 해산물을 노래하고 제7수로 가장 해석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車螯海月與嶼山，巨口文鱗又幾般。日暮腥烟羈鄉井，水虞千舶泛鮮還。

이에 대해 김달진은 『국역 동문선』 10에서 다음과 같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번역하였다.

큰 새우 [車螯魚] 와 해월(海月)과 또 호산(蠔山)과, 거구(巨口)와 문린(文麟) 등 얼마나 많은가./해가 저물어 비린 연기가 향정(鄉井)을 덮으면./수우(水虞)의 많은 배들은 생선을 싣고 돌아온다.

‘해월(海月)·호산(蠔山)·거구(巨口)·문린(文麟)·향정(鄉井)·수우(水虞)’ 등 하나같이 한문 원문 시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대충 그대로 읽음으로써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으나 그렇다고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車螯’를 ‘큰 새우 [車螯魚]’로 해석함으로써 앞서의 시어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입증하는 셈이 되어 버렸다. 적어도 이들 시어들은 하나같이 정확하게 해석이 요구되는 비교적 어려운 어휘들이다.

다음은 『국역 점필재집』 I에서의 임정기의 번역과 『남환박물』에서의 오창명의 번역이다.

대합조개며 해파리며 석화에다/농어며 문린 이외에도 또 몇 가지이던고/해 저물면 비린 연기가 향정을 덮어라/수우의 수많은 배들이 생선 싣고 돌아오네

다음은 박사학위논문 「金宗直의 漢詩研究」에서의 정석용의 번역이다.

대합 조개며 해파리, 석화에다가/농어와 문어 등 몇 가지인가/해가 저물어 비린 연기가 시골 우물을 덮으면/ 수우의 많은 배들은 생선을 싣고 돌아온다

다음은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논문에서의 이원걸의 번역이다.

대합조개 · 해파리 · 굴/농어와 문채 나는 고기 많다네/날 저물어 온 마을 비

린내로 덮일 무렵/수많은 배에 고기 가득 실어 온다오

세 번역을 대조해보면 중요 시어들에 대한 해석이 기본적으로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정기와 오창명의 번역은 완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임정기와 정석용의 번역도 ‘문린’과 ‘문어’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시어들은 거의 일치한다. 특히 ‘해월(海月)’은 보통 ‘해파리’로 해석하고 있으나 문맥상 ‘살조개’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sup>17)</sup> ‘거구(巨口)’

1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에서는 ‘海月’을 네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①바다 위에 뜬 달.(張說, <送王光庭詩> 楚雲眇羈翼, 海月倦行舟.), ②바다에 사는 동물의 이름. 일명 창패(窗貝). 껍데기가 얇고 투명하여 빛이 들어오게 문이나 창문, 또는 천장에 쓰였으며, 고기는 먹기도 함. (郭璞, <江賦> 玉珧海月, 土肉石華. [注]善曰, 臨海水土物志曰, 海月大如鏡, 白色正圓, 常死海邊, 其柱如搔頭太, 中食./梅堯臣, <杜和州寄新醅詩> 淮南寄我玉醅酒, 白蚌海月君家有.), ③정자 이름. 절강성(浙江省) 해염현(海鹽縣) 동쪽에 있음. 『明一統志』 <海月亭>, ④송대(宋代)의 고승(高僧). 화정(華亭) 사람. 속성은 부씨(傅·富氏). 이름은 혜변(慧辯·惠辯). 자는 눌옹(訥翁).”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8, 檀國大 出版部, 1995, 474~475면. 등이다. 이에 반해 모로하시 데쓰지(諸橋徹次)의 『大漢和辭典』에서는 ‘海月’을 여섯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①바다 위에 뜬 달. ②조개의 이름. ③바다 위를 떠다니는 강장동물(腔腸動物)의 일종. 수월(水月). 수모(水母). ④정자 이름. ⑤종이의 일종. ⑥송대의 고승.” 등으로 ‘②조개의 이름.’과 ‘⑤종이의 일종.’의 설명은 『漢韓大辭典』에는 없는 내용이다.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6, 大修館書店, 1984, 1164면. 지금까지 <탁라가>를 번역한 연구자들 가운데 적잖은 사람들이 ‘海月’을 ‘해파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漢韓大辭典』 이전에 간행된 『教學大漢韓辭典』 등에서 보편적으로 ‘海月’을 ‘바다 위의 뜬 달’과 ‘해파리’ 등 두 가지로만 번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教學社, 1998, 1783면. 그런데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海月’에는 ‘조개의 이름’으로 풀이하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로 “『本草』 <海月> 釋名, 玉珧, 江珧, 馬類, 馬甲, 藏器曰, 海月, 蛤類也, 似半月故名./郭璞, <江賦> 玉珧海月, 土肉石華. [注]善曰, 臨海水土物志曰, 海月大如鏡, 白色正圓, 常死海邊, 其柱如搔頭太, 中食.”의 출전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漢韓大辭典』의 ②의 예문인데, 그 설명에 있어서는 『漢韓大辭典』과 『大漢和辭典』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문을 살펴보면 결국 『大漢和辭典』의 설명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海月’은 ‘玉珧’로 ‘해파리’가 아니라 ‘조개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파리를 나타내는 한자 어휘에는 ‘海月’ 말고도 일반적으로 ‘水母, 水月, 海舌’ 등이 쓰였으며, 우리의 옛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 다양하게 쓰였다.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간행의 『韓國漢字語辭典』 3에 따르면 鄭若銓의 『玆山魚譜』에서는 ‘해타(海鮫), 해팔어(海八魚)’(193면), 徐英輔·沈象奎 등의 『

도 ‘농어’가 아니라 ‘법라(法螺)’ 즉 ‘소라고둥’으로,<sup>18)</sup> ‘문린(文鱗)’도 ‘문어’가 아니라 ‘물고기’로<sup>19)</sup>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sup>20)</sup> 또한 ‘수우(水虞)’도 ‘어부’로<sup>21)</sup>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알맞다.

다음은 태호의 『탐라지』에서의 김행옥의 번역이다.

차오(車螯)의 밤달과 다래오름(蠔山)은/큰돌 아롱진 비늘이 또한 몇 가지냐/  
날이 저물어 바다의 연기는 마을의 우물을 덮었는데/고기잡이 일천 척의 배  
는 생선을 싣고 돌아오네.

다음은 李元鎮 『耽羅志』에서의 김상조의 번역이다.

차오(車螯)의 달과 호산에/큰 입 가진 생선은 또 몇 가지더냐./날이 저물어  
바다의 연기는 마을의 우물을 덮으니/고기잡이 일천 척이 배가 돌아오네.

다음은 『譯註 增補耽羅誌』에서의 오문복의 번역이다.

거오와 명합과 바위에 붙은 굴과/입이 큰 물고기와 문어의 종류는 또 몇 가  
지인지/해질녘 온 마을엔 비린내가 번져 옴은/근심하던 모든 배들 생선 싣  
고 돌아오기 때문

萬機要覽』에서는 ‘해양(海洋)’(189면), 許筠의 『惺所覆瓿』에서는 ‘해양(海贖)’(189면), 『朝鮮王朝實錄』 38 <17년 9월 신축조>에서는 ‘해모(海毛)’(186면), 鄭良旋 등이 간행한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物名考·廣才物補』에 따르면 柳僖의 『物名考』와 실명씨의 『廣才物譜』에서는 ‘수모(水母), 저포어(撈浦魚), 석경(石鏡)’(315면, 280면, 481면) 등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8)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4, 大修館書店, 1984, 371면.

19) 柳宗元, <登蒲州石磯望橫江口潭島深迥斜對香零山> 浮暉翻高禽, 沈景照文鱗. 위의 책 5, 597면.

20) ‘농어, 노어(鱸魚)’라는 말은 蘇軾의 『後赤壁賦』 중 “舉網得魚, 巨口細鱗, 狀如松江鱸.”에서 ‘巨口細鱗’이 뜻하는 말인데, ‘巨口文鱗’과는 다른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번역자들이 ‘巨口’를 ‘농어’로, ‘文鱗’를 ‘문채 나는 고기’ 내지는 ‘문어’ 등으로 나누어서 오역하고 있다.

21) ‘水虞’는 원래 ‘옛날의 천택(川澤)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던 벼슬’의 뜻이나 ‘어부’로도 해석된다. 孫希旦集解』愚謂, 水虞澤虞漁師, 漁人也, 水泉池澤之賦, 若周禮漁人之漁征, 掌葛徵草貢之材于澤農之類, 是也. 앞의 책 6, 859면.

세 번역 중 앞의 두 번역을 보면 ‘차오(車螯)의 밤달/차오(車螯)의 달, 다래오름(蠓山)/호산’ 등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결국 오역이다. ‘차오(車螯)’는 ‘대합조개’로, ‘호산(蠓山)’은 ‘굴조개’로<sup>22)</sup>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巨口文鱗’을 ‘큰 돌 아롱진 비늘’과 ‘큰 입 가진 생선’ 등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문복의 번역에서는 ‘차오(車螯)’를 ‘거오’로 오독하는가 하면 ‘문린(文鱗)’을 ‘문어’로 오역하였다.

다음은 화탈도 근처를 건너는 광경을 노래한 제13수이다.

火脫島西水相擊 風雷噴薄怒濤高. 萬斛海鱗傾側過 行人性命若鴻毛.

다음은 『국역 동문선』 10에서의 김달진의 번역이다.

화탈도(火脫島) 서쪽의 물이 서로 치면, 바람과 우레는 용솟음치고 성난 물결은 높다. 만 섬(斛)의 바다미꾸라지(海鱗)가 곁으로 지나가면, 나그네의 생명은 기러기 털과 같다.

다음은 『譯註 增補耽羅誌』과 『耽羅詩選』에서의 오문복의 번역이다.

화탈섬 서쪽에는 물 흐름이 서로 부딪쳐/바람에 우레 치듯 뿜어대는 높은 파도/만곡을 머금은 해추가 지나가 배가 기울어지면/지나가는 사람 목숨은 새털 같다네

다음은 『역주 탐라지』와 『탐라지초본』(상)에서의 오문복의 번역이다.

관탈섬 서쪽 바다 조류 거칠어/바람과 우레 일어 성난 파도가 높이네./수많은 병선 뒤집히니/지나가는 사람 목숨이 위태롭구나.

22) 『本草綱目』 <杜蠓> [集解] 頌曰, 初生止如拳石, 四面漸長至一二丈者, 巖巖如山, 俗呼蠓山. 앞의 책 10, 107면.

세 번역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3구의 ‘海鱈’인데, 김달진의 번역에서는 ‘바다미꾸라지’로, 오문복의 번역에서는 ‘해추’ 또는 ‘병선’으로 번역하였다. 물론 ‘海鱈’에는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나<sup>23)</sup> ‘작은 전선(戰船)의 이름’의 뜻도 있지만<sup>24)</sup> ‘수염고래’의 뜻도 있다.<sup>25)</sup> 따라서 문맥상 ‘고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sup>26)</sup> 또한 제3구의 ‘萬斛’도 김달진은 ‘만 섬 [斛]’의<sup>27)</sup>로, 오문복은 ‘만곡을 머금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매우 많은 분량을 이르는 말’의 뜻이므로 오문복의 두 번째 번역인 ‘수많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sup>27)</sup>

### 3.3.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

주석을 수록하고 있는 번역문으로서는 임정기의 『국역 점필재집』 I, 김달진의 『국역 동문선』 10, 김희동의 『南槎錄』, 홍희표의 『南槎錄 譯註』 (上), 오문복의 『역주 탐라지』, 오문복의 『탐라지초본』(상),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 오문복의 『耽羅詩選』, 이원걸의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등인데, 이 가운데서 정확하지 않은 주석을 차례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제5수 제2구의 ‘雲錦’에 대한 『譯註 增補耽羅誌』와 『탐라시선』에서의 주석이다.

23) 李時珍, 『本草綱目』 <鱗 4, 鱈魚> [集解] 時珍曰, 海鱈生海中極大, 江鱈生江中長七八寸. 앞의 책 6, 1166면.

24) 楊萬里, <解鱈賦> 笑未既, 海鱈萬艘相繼突出而爭雄矣, 其迅如風, 其飛如龍.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8, 檀國大 出版部, 1995, 478면.

25) 『赤城志』 <紀遺, 海鱈> 形長十餘丈, 皮黑如牛, 揚鬣鼓鬣, 噴水至半空, 皆成烟霧. 앞의 책, 478면.

26) 장한철의 <표해록> 12월 25일조에 보면 사공들이 고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큰 놈은 배를 삼키고, 작다 해도 능히 배를 뒤엎을 텐데... 저 놈하고 부딪히는 날이면 볼장 다 보겠네.” 라고 놀라고 있다. 張漢喆, 鄭炳昱 譯, 『漂海錄』, 汎友社, 1979, 24면.

27) 杜甫, <夔州歌 7> 蜀麻吳鹽自古通, 萬斛之舟行若風.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앞의 책 11, 992면.

雲錦 : 아침노을. 여기서는 좋은 말(馬)을 형용한 말.

‘雲錦’에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구름무늬를 수놓은 비단의 뜻이고,<sup>28)</sup> 또 다른 하나는 ‘아침노을. 또는 채운(彩雲).’의 뜻이다.<sup>29)</sup> 따라서 ‘아침노을’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다음은 제7수 제1구에 나오는 ‘海月’에 대한 오문복의 『역주 탐라지』 주석이다.

해월(海月)은 해파리로, 자포동물 해파리강, 히드라총강의 부유 세대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한천질이고 샷갓 모양으로 생겼으며 각 밑에는 많은 촉수가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에 입이 있다. 촉수 표면에는 많은 자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독침으로 먹이를 먹는다.

다음은 오문복의 『탐라시선』에서의 주석이다.

海月 : 전복. 오분자기를 뜻하는 듯.(출전 미상.) 『南槎錄』에는 蝸蛤으로 되어 있다.

두 주석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도 하나는 ‘해파리’로, 다른 하나는 ‘전복, 오분자기’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잘못된 번역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문맥상 ‘살조개’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음은 제7수의 제1구 ‘蠔山’에 대한 김희동의 『남사록』에서의 주석이다.

蠔山(호산) : 굴이 모여서 山처럼 된 것.(韓愈, <南食詩> 蠔相粘爲山, 百十各自生.)

28) 李唐賓, <梧桐葉, 3折> 烟裊金爐寶篆燒, 傍雲錦衣飄. 앞의 책 14, 1151면.

29) 木華, <海賦> 雲錦散文於沙汭之際, 綾羅被光於螺蚌之節, \*注에 翰曰, 雲錦, 朝霞也. 諸橋轍次, 앞의 책 12, 110면.

다음은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와 『탐라시선』에서의 주석이다.

蠔山 : 바위틈에 산봉우리 같이 첩첩이 싸여 서식하는 굴의 일종.

‘蠔山’에 대한 두 주석을 보면 설명이 다르다. ‘蠔山’은 원래 ‘큰 굴조개의 덩어리.’이다. 김희동의 ‘蠔山’에 대한 출전 인용은 정확하지 않으며, 오문복의 주석은 과장되었다.

다음은 제7수의 제2구에 나오는 ‘巨口’에 대한 김희동의 『南槎錄』에 수록된 주석이다.

巨口(거구) : 물고기의 이름인데 아마도 鱸語(농어인 듯. 待考. 蘇軾, 《後赤壁賦》 學網得魚, 巨口細鱗, 狀如松江鱸.)

다음은 각각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와 『耽羅詩選』에서의 설명이다.

거구(巨口) : 농어(鱸語). 농어(鱸語). (소동파의 후적벽부에 나오는 거구세린(巨口細鱗)이라는 말. 여기서는 비늘 달린 고기를 총칭해서 쓴 것이다.

巨口 : 巨口細鱗(「後赤壁賦」을 줄여서 쓴 말. 농어(鱸語). 여기서는 비늘 달린 고기를 총칭해서 쓴 말인 듯.

세 주석 다 ‘巨口’를 ‘巨口細鱗’의 약자로 보아 ‘농어’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7수 제1구의 시어들이 ‘車螯·海月·蠔山’ 등으로 띄어 읽는다면 ‘巨口文鱗’도 ‘巨口·文鱗’으로 띄어 읽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또한 ‘巨口’를 ‘巨口細鱗’의 ‘농어’의 약자로 보기보다는 제1구의 시어들과 같은 맥락에서 ‘巨口’의 원래 뜻인 ‘法螺’ 즉 ‘소라고둥’으로 읽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7수 제2구의 ‘文鱗’에 대한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와 『탐라시선』에서의 주석이다.

文鱗 : 문어.

원래 ‘文鱗’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늘 모양의 무늬’이고,<sup>30)</sup>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물고기. 고운 물고기.’의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어’의 뜻보다는 ‘아름다운 물고기’의 뜻으로 ‘물고기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다음은 제7수의 제4구에 나오는 ‘水虞’에 대한 임정기의 『국역 점필재집』 I 과 홍희표의 『南槎錄 譯註』(上)과 오창명의 『남환박물』에 수록된 주석이다.

수우(水虞) : 본디 소지(沼池)나 하천(河川)을 맡은 관명인데, 여기서는 곧 해산물(海産物)을 관장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은 정석용의 박사논문 「金宗直의 漢詩研究」과 이원걸의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에서의 주석이다.

수우(水虞) : 해산물을 관장하는 관아.

다음은 김희동의 『南槎錄』에 수록된 주석이다.

水虞(수우) : 고기잡이를 말하는 뜻.

다음은 오문복의 『譯註 增補耽羅誌』과 『耽羅詩選』에서의 설명이다.

水虞 : 물에서 항해 중에 당하는 환난에 대한 근심.

‘水虞’는 본래 ‘옛날의 천택(川澤)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던 벼슬.’의 뜻이다. 여섯 사람의 네 주석을 비교해보면 임정기와 홍희표와 오창명의 설명은 ‘본디 소지(沼池)나 하천(河川)을 맡은 관명인데, 여기서는 곧 해

30) 司馬相如, <上林賦> 玕璣文鱗, 赤瑕駮犖. 앞의 책 5, 597면.



산물(海產物)을 관장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동일하다. 즉 홍희표와 오창명은 임정기의 주석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정석용과 이원걸도 임정기의 설명을 베껴서 '해산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水虞'의 '漁師, 漁人'으로서의 뜻을 간과한 주석이다. 여기서는 문맥상 '어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김희동은 '고기잡이를 말하는 듯.'이라고 애매하게 설명하였고, 오문복은 어떤 출전도 제시함이 없이 '물에서 항해 중에 당하는 환난에 대한 근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제13수의 제3구에 나오는 '海鱈'에 대한 김달진의 『국역 동문선』 10에 수록된 주석이다.

해추(海鱈) : 바다의 미꾸라라고도 하는데 그 크기가 고래의 몇 10배나 된다  
고 옛 사람들은 믿었다.

'海鱈'에는 '바다에 사는 미꾸라지'의 뜻도 있지만 '수염고래'의 뜻도 있다. 문맥상 '바다 미꾸라지'로 설명하기보다는 '고래'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김종직의 <탁라가>의 번역양상을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되었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에서는 '包重→包裹→包裹', '還怨→還恐', '吳公→蜈蚣', '相笑→相哭', '毛羅歌→托羅歌', '車螯→車螯', '海月→蜆蛤' 등에서 오독하고 있었다. 특히 정본에 따른 정확한 글자를 읽어내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번역 사례에서는 '伉儷來從日出濱'을 '서로 짝지어 헤뜨는 동쪽에 와서 살았네'로, '車螯海月與蠔山'를 '대합조개며 해파리며 석화에다'나

‘차오(車螯)의 밤달과 다래오름(蠔山)은’으로, ‘巨口文鱗又幾般’을 ‘농어며 문린 이외에도 또 몇 가지이던고’나 ‘농어와 문어 등 몇 가지인가’로, ‘水虞千舶泛鮮還’을 ‘수우의 많은 배들은 생선을 싣고 돌아온다’나 ‘근심하던 모든 배들 생선 싣고 돌아오기 때문’으로, ‘萬斛海鱗傾側過’을 ‘만 섬 [斛]의 바다미꾸라지가 곁으로 지나가면’이나 ‘수많은 병선 뒤집히니 등으로 오역하고 있었다. 원문의 시어의 여러 가지 뜻을 정확히 살피지 않은 번역이었다.

정확하지 않은 주석에서도 ‘아침노을’의 ‘雲錦’을 ‘좋은 말’로, ‘살조개’의 ‘海月’을 ‘해파리’나 ‘전복’으로, ‘굴조개’의 ‘蠔山’을 ‘굴이 모여서 산처럼 된 것’으로, ‘소라고둥’의 ‘巨口’를 ‘농어’로, ‘여러 물고기’의 ‘文鱗’을 ‘문어’로, ‘어부’의 ‘水虞’를 ‘해산물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고기잡이’나 ‘물에서 항해 중에 당하는 환난에 대한 근심’으로, ‘고래’의 ‘海鱗’를 ‘바다 미꾸라지’ 등으로 틀리게 설명하고 있었다. 출전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주석들이 문제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權文海, 남명학연구소 경상한 문학연구회 역주, 『大東韻府群玉』 卷6, 소명출판, 2003.
- 權鼈, 『海東雜錄』 下(影印), 太學社, 1986.
- 金斗奉, 吳文福 譯, 『濟州島實記』, 濟州市愚堂圖書館, 2003.
- 金尙憲, 金禧東 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 金尙憲, 濟州道, 『南槎錄』(奎章閣本), 『濟州史料叢書(I)』, 濟州道, 1998.
-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 金錫翼, 『心齋集』(鄉土資料叢書 2), 濟州文化社, 1990.
- 金宗直, 『佔畢齋先生全書』(全七冊), 學民文化社, 1996.
- 김석익, 오문복 외 역, 『濟州 속의 耽羅 : 심재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 김종직, 임정기 역, 『국역 점필재집』 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96.
-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3, 檀國大 出版部, 1995.
-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 8, 檀國大 出版部, 2005.
- 淡水契, 吳文福 外 譯,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 淡水契, 『增補耽羅誌』, 濟州淡水契, 1954.
- 민족문화추진회, 권덕주 역, 『국역대동야승』 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1.
-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12(影印), 民族文化推進會, 1996.
-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李朝名賢集』 2, 成均館大 出版部, 1986.
- 申用漑 外, 경원문화사, 『續東文選』, 『韓國漢詩文選集』 5, 경원문화사, 1992.
- 申用漑 外, 양주동 외 공역, 『국역동문선』 10, 서울출판사, 1968.
- 吳文福 編譯,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 李元鎭, 金相助 譯,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 이원진, 김찬홍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李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 張漢喆, 鄭炳昱 譯, 『漂海錄』, 汎友社, 1979.
- 鄭良婉 外,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 物名考·廣才物補』, 韓國精神 文化研究

院, 1997.

諸橋徹次, 『大漢和辭典』(全14冊), 大修館書店, 1984.

제주도교육위원회, 김행옥 외 역,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1.

## 2. 논문 및 단행본

金成奎,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Ⅱ : <탁라가><금성곡>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1,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2.

朴善楨, 「佔畢齋 金宗直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86.

朴善楨, 『佔畢齋 金宗直 文學 研究』, 二友出版社, 1989.

윤치부, 「김중직 <탁라가>의 이본 고찰」, 『古詩歌研究』 29, 韓國古詩歌文學會, 2012.

이연순,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李源杰,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漢文學報』 5, 우리한문학회, 2001.

李源杰,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退溪學』 14, 安東大退溪學研究所, 2004.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鄭景柱,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石堂論叢』 16, 東亞大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0.

鄭錫龍, 「金宗直 漢詩 研究」, 壇國大 碩士論文, 1986.

鄭錫龍, 「金宗直의 漢詩 研究」, 暎園大 博士論文, 2001.

## 국문초록

## 김종직 &lt;탁라가&gt;의 번역 양상 고찰

윤치부

이 글은 1465년(세조 11) 2월 28일 35세의 영남병마평사 김종직이 지금의 충청남도 천원군 직산면 지역에 있었던 성환역에서 제주에서 약물을 진공하러 온 김극수를 만나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묻고 지은 칠언절구인 <탁라가> 14수의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종직의 <탁라가>를 수록한 『점필재집』·『속동문선』·『해동잡록』·『탐라지』·『남사록』·『남사일록』·『남환박물』·『탐라시선』 등을 번역한 문헌들과 <탁라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을 중심으로 틀린 한자와 오독 사례, 잘못된 번역 사례, 정확하지 않은 주석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독 사례에서는 원문 글자를 틀리게 읽는 경우와 이본에 따른 글자의 변이를 간과한 데서 나타나는 경우로 모두 정본에 따른 정확한 읽기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잘못된 번역 사례에서는 시어의 여러 가지 뜻을 세심하게 살펴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하지 않는 주석 사례에서는 시어에 대한 출전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임의적인 설명으로 주석을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제어 : 김종직, 탁라가, 번역양상, 점필재집, 속동문선, 탐라지, 남사록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akraga by Kim Jong-jik

Yoon, Chi-boo

On February 28 in 1465 (the 11th year of King Sejo's reign), Yeongnam Byeongma Pyeongsa Kim Jong-jik who was 35 years old had a meeting with Kim Keuk-soo from Seonghwanyeok, Jiksanmyeon, Cheonwongun, Chungcheongnam-do. Kim Keuk-soo came to Jeju to study drugs. Kim Jong-jik asked Kim Keuk-soo about customs and produce in Jeju and wrote Takraga, a quatrain with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The present thesis has studied 14 translations of Takraga. Until now, Jeompiljaejib·Sokdongmunseon·Haedongjabrok·Tamraji·Namsarok·Namsayilrok·Namhwanbakmul and Tamrashiseon have been translated while several papers on Takraga were published. In this thesis, wrong Chinese, wrong translations, reading mistakes and inaccurate footnotes found in the translation of Takraga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erms of the reading mistakes, the mistakes occurred when words in the original copy were wrongly read and translators overlooked changes of the words. The reading mistakes, in other words, were made because the words were not correctly read. For the wrong translations, the translators failed to carefully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the words, being lost in finding the most appropriate words in the contexts. Not only that, in terms of the wrong footnotes, they occurred because the translators have added footnotes to the

copies as they pleased.

key words : Kim Jong-jik, Takraga, Translation, Jeompiljaejib, Sokdongmunseon,  
Tamraji, Namsarok

논문 받은 날 : 2012년 10월 29일  
심사 기간 : 2012년 11월 16일~12월 1일  
신기로 한 날 : 2012년 12월 7일

